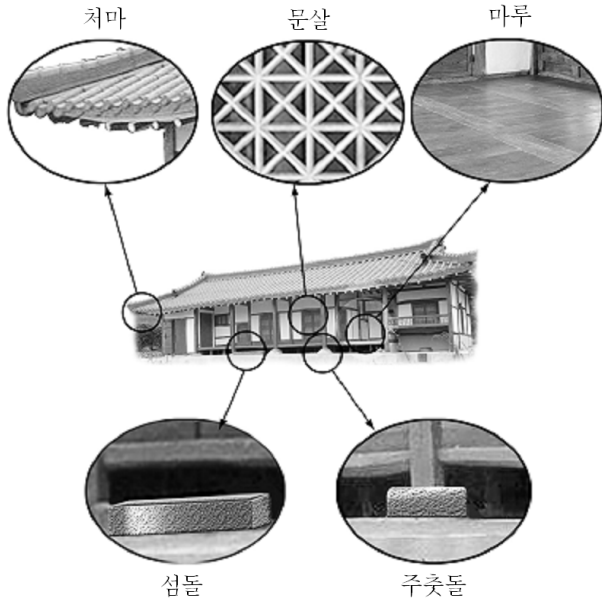


6. '바람직한 삶'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한 자료이다. 그림의 속성을 통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구분	속성	연상한 내용
치마	보호	한 사람의 작은 도움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될 수 있다. ㉠
문살	조화	개개인의 역할이 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할 수 있다. ㉡
마루	개방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
섬돌	보조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
주춧돌	지지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 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가)와 (나)를 활용하여 글쓰기 계획을 구상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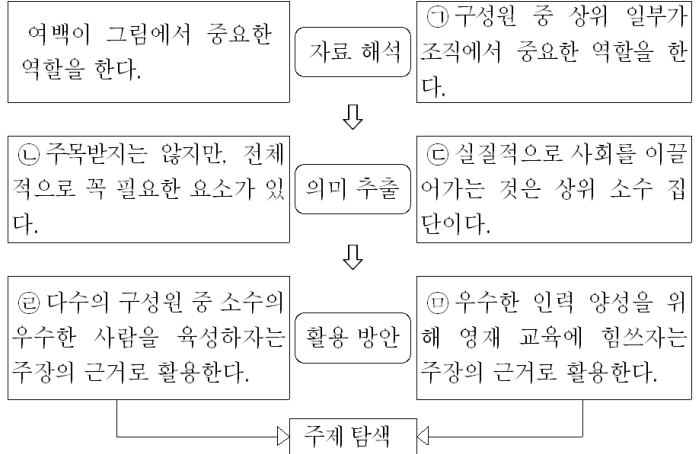
(가)

- 여백은 그림 전체에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생명력을 부여한다. -

(나) '파레토 법칙'에 의하면, 조직 구성원의 상위 20%가 전체 일의 80%를 수행하고 있으며, 20%의 소수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

(가)

(나)



- ① ㉠ ② ㉡ ③ ㉢ ④ ㉣ ⑤ ㉤

8. '청소년의 언어 사용'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I. 서론 : 청소년 언어 사용의 실태

II. 본론

1. 청소년 언어 사용의 문제점

(1) ㉠ 외래어의 사용

(2) 저속한 언어 사용 분위기

(3) 규범이 파괴된 언어의 사용

2. 문제 발생의 원인

가. 개인적 측면

(1) 격식을 갖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

(2) ㉡ 그릇된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나. 사회적 측면

(1) ㉢ 지나친 불법 광고의 확산

(2) 대중 매체에 의한 언어 왜곡의 확산

(3)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주변인들의 무관심

3.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방안

가. 개인적 측면

(1) 격식을 갖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2) ㉤ 바른 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3) 청소년 상호간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노력

나. 사회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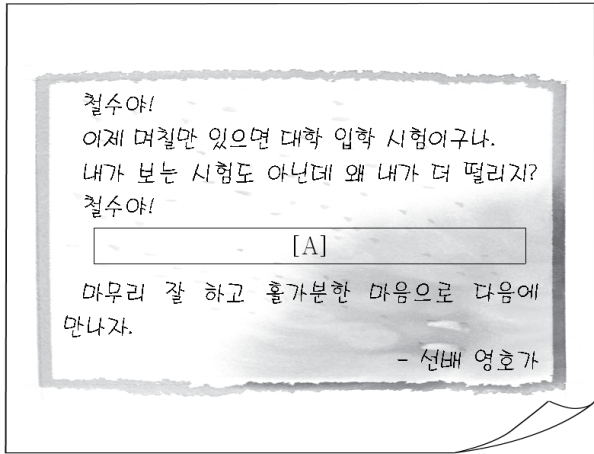
(1) 대중 매체의 건전한 언어 사용 방안 마련

(2) 청소년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주변인들의 계도

III. 결론 : ㉣

- ① ㉠ : 상위 항목에 맞지 않으므로 '비속어의 남용'으로 수정한다.
- ② ㉡ :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필요성 홍보'로 교체한다.
- ③ ㉢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④ ㉤ : 사회적 측면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본론-3-나'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한다.
- ⑤ ㉤ :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청소년들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 노력의 촉구'를 삽입한다.

9.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둔 후배에게 글을 쓰려고 한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은?



< 보기 >

<조건>

- 1. 전체의 어조를 유지할 것
- 2.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3. 격려하는 내용을 담을 것

- ① 나처럼 시험을 망치고 후회해 봐야 소용없어.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 ② 시험은 삶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한 너의 모습이 좋구나.
- ③ 노력은 성취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천이 되며, 결과는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기회이다.
- ④ 최선을 다한 너에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결승점을 통과하면 태양 같은 밝은 미래가 너를 맞이할 거야.
- ⑤ 꿈은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단지 너의 꿈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불과하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나 우리의 행동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 바약으로 남이 자신에게 충고하는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말이다.

㉡ 그러므로 남이 올바르게 충고하는 말은 받아들이기 싫어하면서, 달콤하게 아부하는 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나에게 아침하는 말, 나를 공연히 ㉣ 치켜올려 주는 말은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 지혜를 기르거나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하는 말을 좋은 약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 ① ㉠은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모름지기'로 바꾼다.
- ②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런데'로 바꾼다.
- ③ ㉢은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맞춤법에 맞게 '추어올려'로 수정한다.
- ⑤ ㉤은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지혜와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는'으로 바꾼다.

1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

'길'과 '오솔길'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오솔길'은 '길'이라는 낱말에 의미상 포함되는데, 이 경우 '오솔길'은 '길'에 대하여 ㉠ 하위 관계에 있다.

또한 '길'은 본래 '사람이나 동물이 다닐 수 있는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라는 중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중심적 의미가 확장되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라는 ㉡ 주변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 ① 소리
 - ㉠ 그 어른은 소리를 참 잘하시어.
 - ㉡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 ② 바다
 - ㉠ 동해의 일출이 참 장관이로군.
 - ㉡ 바다가 옥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 ③ 바람
 - ㉠ 높새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구나.
 - ㉡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 찾아왔니?
- ④ 나무
 - ㉠ 소나무는 선비의 절개를 나타내.
 - ㉡ 저 마을에는 오래된 나무집이 있어.
- ⑤ 황금
 - ㉠ 그 사람은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 ㉡ 황금에 눈이 어두워진다면 큰일이야.

12. <보기>를 바탕으로 '데'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보기 >

- 데 **[의존명사]** ① 곳, 처소. ② 경우, 처지. ③ 일, 것.
- 데 **[접두사]** ① 동사 앞에 붙어 완전하지 못함을 뜻하는 말.
② 형용사 앞에 붙어 '몹시·매우'의 뜻으로 쓰는 말.
- 데 **[어미]** ①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일러 주거나 스스로의 느낌을 나타냄.
② 지난 일을 회상하여 묻는 뜻을 나타냄.

<용례>

- ㉠ 소설책 한 권을 다 읽는 데 사흘이 걸렸다.
- ㉡ 너 어디 갈 데라도 있니?
- ㉢ 그 녀석 알고 보니 데사납더라.
- ㉣ 어제 결혼식에 사람이 무척 많이 왔데.
- ㉤ 그 사람 아직도 놀고 먹데?

- ① ㉠의 '데'는 의존명사로서 '일'이나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예로구나.
- ② ㉡의 '데'는 의존명사로 '경우'나 '처지'를 나타낼 때 쓰는구나.
- ③ ㉢의 '데'는 형용사 앞에 붙은 접두사에 해당하는구나.
- ④ ㉣의 '데'는 용언의 뒤에 붙는 어미로, 경험한 사실을 일러 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 ⑤ ㉤의 '데'는 용언의 뒤에 붙는 어미로 지난 일을 회상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구나.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 가지에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꿉집에 몰려 ㉡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 앵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꼬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럽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말버둥친들 무엇하랴. [A]
 ㉣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붙거나.
 고갯길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나)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맘의 뒤를 따르고
 여기 쓸쓸한 자유(自由)는 곁에 있으나
 꽃뿔이 흰눈은 흘날려 이정표(里程表) 씩은 막대 고이 묻히고
 더러운 발자국 함부로 찍혀
 오직 치미는 미움
 낮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니 개가 짖는다.
 어메야, 아직도 차디찬 묘(墓) 속에 살고 있느냐.
 경월 기울어 낙엽송(落葉松)에 쌓인 눈 바람에 흐트러지고
 산(山)짐승의 우는 소리 더욱 처량히
 개울물도 파랗게 얼어
 [진눈깨비]는 금시로 내려 비애(悲哀)를 적시울 듯
 도형수(徒刑囚)의 발은 무겁다.

- 오장환, 「소야의 노래」

(다)

鶯원鶯양錦금 비혀 노코 五오色色線선 플터 내어,
 금자희 건화이서 님의 옷 지어 내니,
 手手品품은 ㄹ니와 制度도도도 ㄹ줄시고,
 珊山瑚호樹슈 지게 우희 白백玉玉函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거신 뒤 바라보니,
 山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흠시고,
 千千里里萬萬里里길힐 뉘라셔 츠자 같고, [B]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중략)

흐르도 열두 새 흔 들도 설흔 날,
 저근덧 심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믿음의 띠쳐 이셔 骨골髓슈의 쉼터시니,
 扁扁鵲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흐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석여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꽃나모 가지마다 간 뒤 족족 안니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의 오식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흐노라.
 - 정철, 「사미인곡」

1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적 한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시적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 ③ 일관된 어조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4. [A]와 [B]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수동적이고, [B]는 능동적이다.
- ② [A]는 낙관적이고, [B]는 비관적이다.
- ③ [A]는 객관적이고, [B]는 주관적이다.
- ④ [A], [B] 모두 주어진 상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⑤ [A], [B] 모두 현실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근대화, 산업화는 농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시작되었다. 신경림의 「농무」는 산업화의 거센 물결로 인해 소외되고 급속도로 와해되어 가던 1970년대 초반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농민의 고뇌, 울분을 고발하고 토로하였다.

- ① ㉠: 산업화 시대에 허탈해진 농민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② ㉡: 농민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고뇌를 술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③ ㉢: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농촌의 전통적인 풍속을 되살리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 ④ ㉣: 산업화로 인해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 농민의 울분과 고통을 농무를 통해 극복하려는 승화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16. **진눈깨비**와 **구름**의 공통된 시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낸다.
- ② 화자의 나약함을 나타낸다.
- ③ 화자의 무능력함을 보여준다.
- ④ 화자와 외부 세계를 단절시킨다.
- ⑤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표출한다.

17. (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 보기 —

ㄱ. 정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ㄴ. 화자는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고뇌하고 있다.
 ㄷ. 현실에 대한 화자의 치열한 대응 의식이 드러나 있다.
 ㄹ. 차갑고 무거운 시어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8. <보기>와 (다)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뿔머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시는 窓(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 홍량의 시조

- ① <보기>의 '뿔머들'과 (다)의 '님의 옷'은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 것이군.
- ② <보기>의 '뿔머들'과 (다)의 '뱀나뱀'은 모두 사랑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보기>의 '보내노라'와 (다)의 '보내오려'는 입에게 화자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보기>의 '새 잎'은 입에 대한 사랑에서, (다)의 '뱀'은 입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보기>의 '뱀뱀'이 사랑의 전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 (다)의 '향'은 사랑을 입에게 전해주는 매개체라고 하겠군.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보통 세상만사가 대부분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사회는 가장 합리적인 원칙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일종의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는 그렇지 않으며 비(非)합리적인 면이 매우 많다는 주장이 있다.

1914년 영국 해군의 수는 15만 명, 군함(軍艦) 수리창의 관리자와 사무원은 3200명, 여기에 근로자가 5만 7000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4년 후인 1928년에는 전쟁이 없어 해군이 10만 명으로 줄고 군함 수도 줄었지만, 수리창 관리자와 사무원은 오히려 4600명으로 늘었다. 또한 해군 본부의 관리자 수는 2000명에서 3600명으로 늘었다. 해군의 수는 30% 정도 줄었지만, 수리창의 관리자와 사무원 수는 40%, 본부 관리자 수는 무려 80%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해야 할 업무'는 줄었는데도 관리자들이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해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 '사람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결국 업무량 감소와 관리자 수의 변화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셈이다.

이런 현상을 분석하여 하나의 법칙으로 제시한 사람이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사회 생태학자인 노스코트 파킨슨(N. Parkinson)이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동안 영국 해군의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1955년 관료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파킨슨의 법칙'을 만들어 발표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의 수는 업무의 양(量)에 상관없이 증가한다는 것과 출세를 위해서는 부하의 수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수를 자꾸 늘린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 수는 업무의 증감에 상관없이 매년 평균 6% 정도 증가한다는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뒤 수식으로 만들었다.

① 파킨슨 법칙은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비단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사회 어느 조직에서도 이 법칙은 적용될 수 있다. 작은 기업이 계속 성장해서 큰 기업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이른바 '대기업 병(病)'에 걸리게 된다. 대기업 병에 걸린 대다수 기업에서는 파킨슨 법칙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파킨슨은 사회 곳곳에서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허점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비교적 유용한 의사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말 우수한 사람이 조직을 이끌고,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들이 모여 신중하게 한다면 그 조직, 그 사회는 훨씬 더 발전한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제 밥그릇 찾기', '자기 식구 챙기기', 그리고 '책임 회피' 등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 요소들이 만연한다면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이사회 제도와 최고 경영자의 역할 강화, 또는 수평적인 팀(team) 제도를 통해 의사 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 대국이 되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한 번쯤은 파킨슨의 법칙을 되새겨 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 사회도 구성원들 사이에 혈연, 지연, 학연, 파벌 그리고 기득권 지키기 등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 요소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반목과 갈등의 굴레에 갇혀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다.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업무량과 공무원의 수는 비례하지 않는다.
- ② 파킨슨 법칙은 어느 조직에서나 적용될 수 있다.
- ③ 조직 내부의 인간적 결속이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④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요소들은 사회의 갈등을 유발한다.
- ⑤ 기업의 성장이 파킨슨 법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0.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사람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으면서도 회사 이익의 대부분이 사람에게 의해 창출되는 이른바 '피플 비즈니스(People Business)'가 주목받고 있다. '피플 비즈니스'는 회사의 자본 투자와 이윤 창출의 대부분이 인력과 관계되는 경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영 구조에서 기업들은 인력을 수익원보다는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인건비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이 회계, 법률, 광고, 컨설팅 등 지식 기반 산업 구조로 이동하면서, 지금의 기업들은 인력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피플 비즈니스'가 고(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 방식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 ① 위 글에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문제를, <보기>에서는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 ② 위 글에서는 인력을 수익 증대의 원천으로, <보기>에서는 인력을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 ③ 위 글에서는 인력 감소를 통한 효율화를, <보기>에서는 인력 증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위 글에서는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의 필요성을, <보기>에서는 조직의 합리적인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위 글에서는 비합리적 요인으로 인한 인력 증가 문제를, <보기>에서는 인력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다루고 있다.

21.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업무 분석을 철저히 하여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겠군.
- ② 조직 발전을 위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를 지녀야겠군.
- ③ 중요한 사안일수록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이군.
- ④ 수평적인 팀 체도를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겠군.
- ⑤ 서로의 화합을 위해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겠군.

22. ㉠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산지석(他山之石)
- ② 금과옥조(金科玉條)
- ③ 아전인수(我田引水)
- ④ 역지사지(易地思之)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홉 살 난 아이는 어느 날, 동네 과수 할머니로부터 자기의 못생긴 누이가 죽은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된다. 아이의 환상 속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예쁜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누이의 지나치게 큰 입 사이로 드러난 검은 잇몸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누이로서는 흉내도 못 내게 무척 예뻐할 것이라고 다시 생각하며 누이에 대해 미운 마음을 갖게 된다.

누이가 비단 색 형겔을 모아 만들어 준 낭자를 튼 예쁜 각시 인형이 있었다. 아이가 언제나 란도셀*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었다. 과목은 요일을 따라 바뀌었으나 항상 란도셀 속에 이 인형만은 변함없이 들어 있었다. 지금 아이는 이 인형의 여태까지 그렇게 이쁘던 얼굴이 누이의 얼굴이나처럼 미워짐을 어쩔 수 없었다. 저녁 그늘이 내린 과수 노파가 사는 골목을 얼마 들어가다 아이는 주위에 사람 없는 것을 살피고 나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칼끝으로 땅을 파 가지고 거기에는 품속의 인형을 묻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났다. 인형인가 누이인가 분간 못 할 서로 얽힌 손들이 매달리는 것 같음을 아이는 느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와 다른 그 손들을 쉽사리 뿌리칠 수 있었다. 골목을 다 나온 곳에서 달구지를 벗은 당나귀가 아이의 아랫도리를 찾았다. 아이는 굴러 나가동그라졌다. 분하다. 일어난 아이는 당나귀 고삐를 쥐고 달구지 채로 해서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아이의, 뉘터럼 생겼단 말이가 하는 소리가 더 커감에 따라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뒤에서 누이의 데릴! 하는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당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누이가 분주히 달려왔다. 그러나 아이는 누이가 위에서 굽어보며 붙들어 일으키려는 것을 무지스럽게 손으로 뿌리치고는 혼자 벌떡 일어나, 뻘 다리를 예사롭게 놀려 집으로 돌아왔다.

(중략)

누이는 시내 어떤 실업가의 막내아들이라는 작달막한 키에 얼굴이 검푸른, 누이의 한 반 동무의 오빠라는 청년과는 비슷도 안한 남자와 아무 불평 없이 혼약을 맺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되어 결혼하는 날, 누이는 가마 앞에서 의붓어머니의 팔을 붙잡고는 무던히나 슬프게 울었다. 아이는 골목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누이는 동네 아낙네들이 떼어놓는 대로 가마에 오르기 전에 젖은 얼굴을 들었다. 자기를 찾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 아이는 그냥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누이가 시집간지 또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별나게 빨간 놀이 진 늦저녁 때 아이네는 누이의 부고를 받았다. ㉡ 아이는 언뜻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 내려 하였으나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는 지난날 누이가 자기에게 만들어 주었던, 뒤에 과수 노파가 사는 골목 안에 묻어 버린 인형의 얼굴이 떠오를 듯함을 느꼈다. 아이는 골목으로 뛰어갔다. 거기서 아이는 인형 묻었던 자리라고 생각키우는 곳을 손으로 봤다. 흙이 단단했다. 손가락을 세워 힘껏 힘껏 파냈다. 없었다. 짐작되는 곳을 또 파 보았으나 인형은 없었다. 벌써 썩어 흙과 분간치 못하게 된지가 오래리라. 도로 골목을 나오는데 전처럼 당나귀가 매어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전처럼 당나귀가 아이를 차지는 않았다. 아이는 달구지 채에 올라서지도 않고 전보다 쉽사리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전처럼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 아이는 당나귀에게나처럼, 우리 날 왜 꺾엔! 왜 꺾엔! 하고 소리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당나귀가 더 날뛰수록 아이의, 왜 꺾엔! 왜 꺾엔! 하는 지름소리가 더 커졌다. 그러다가 아이는 ㉡ 문득 골목 밖에서 누이의, 데런! 하는 부르짖음을 들은 거로 착각하면서, 부러 당나귀 등에서 떨어져 굴렀다. 이번에는 어느 쪽 다리도 빠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그제야 눈물이 괴었다. 어느 새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이 돌아왔다가 눈물 낀 아이의 눈에 내려왔다. 아이는 지금 자기의 오른쪽 눈에 내려온 별이 돌아간 **어머니**라고 느끼면서, ㉢ 그럼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지, 아무래도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으며 눈을 감아 눈 속의 별을 내몰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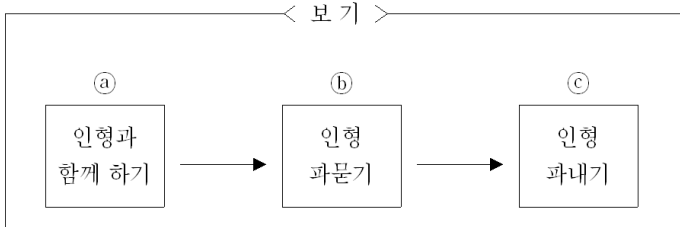
- 황순원, 「별」

* 란도셀 : (군인·여행자의) 낱색, 배낭, 바랑.

2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 추이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③ 어조의 변화를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 묘사로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 ⑤ 시점에 변화를 주어 인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24. 인형과 관련한 아이의 행동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아이는 누이가 만들어 준 각시 인형을 애착의 대상으로 삼는다.
- ② ㉠에서 ㉡로의 변화 계기는 과수 노파의 이야기 때문이다.
- ③ ㉡를 통해 아이가 누이를 거부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에서 ㉢로의 변화는 누이의 결혼 때문이다.
- ⑤ ㉢를 통해 아이가 누이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누이를 애써 외면하려는 아이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
- ② ㉡: 자꾸 생각나는 누이의 얼굴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아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
- ③ ㉢: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 ④ ㉢: 누이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아이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
- ⑤ ㉢: 아이가 누이를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어.

26. 위 글과 <보기>의 **어머니**가 갖는 공통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색채 다른 표정! 색채 다른 표정!

그의 어머니는 회대의 미녀였다. 대대로 이후 자손의 미까지 모두 미리 빼앗았던지 세상에 드문 미인이었다. 화공은 이 미녀의 유복자였다. 아버 없는 자식을 가슴에 붙이고 눈물 머금은 눈으로 굽어보던 표정. 철이 든 이래로 자기를 보는 얼굴에서는 모두 경악과 공포밖에는 발견하지 못한 이 화공에게는 사십여 년 전 **어머니**의 사랑의 아름다운 얼굴이 때때로 몸서리치도록 그리웠다. 그것을 그려 보고 싶었다. 커다란 눈에 그득히 담긴 눈물. 그러면서도 동경과 애무로써 빛나던 눈. 입가에 떠오르던 미소. 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심안(心眼)에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이 환영을 화공은 그려 보고 싶었다.

- 김동인, 「광화사」에서

- ① 예술적인 모방의 대상이다.
- ② 타인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 ③ 현실에 부채하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 ④ 자아를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막아주는 유일한 존재이다.

[30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표어는 사전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 한 마디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표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표어의 생산자인 화자와 수용자인 청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식과 내용도 분명해야 한다.

우선 표어의 생산자와 수용자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가. 빠짐없이 행사하자 귀중한 나의 한 표

나.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이처럼 (1)에서는 생산자인 정부와 사회 단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에게 호소하거나 알리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표어의 수용자가 대중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표어의 형식은 속담, 관용어 등과 같은 언어 형식과 비교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2) 가. 밑밭에서 술 찾는다.

나. 눈이 높다.

다. 바른 정치 바라거든 바른 일꾼 바로 뽑자.

‘(2)-가’는 속담의 예이고, ‘(2)-나’는 관용어의 예이며 ‘(2)-다’는 표어의 예이다. 이 세 가지 형식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짧거나 간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형식이라는 측면으로만 보면, 이들을 서로 구별하기가 힘들다. 경우에 따라서는 속담과 관용어가 표어보다도 더 짧거나 간결한 어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속담과 관용어는 그 음절수가 일정하지 않은 데 비해서, 표어는 ‘(2)-다’의 예처럼 대부분 16자로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 표어는 3·4조, 4·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표어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16자 이내로 압축하여 운율적으로 표현한 언어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율격으로 표현된 표어는 내용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어의 내용으로는 ㉠ 어떤 특정한 대상을 편들어서 보호하는 옹호와, 어떤 일을 위하여 힘쓰게 하는 장려가 있다. 표어에서 옹호는 주로 인권과 관련하여 실현되며 장려는 주로 저축과 독서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 깨우치게 하는 계몽이 있는데 투표권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할 것, 기술을 배울 것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애국 정신, 법 존중 의식 등을 고취하는 양양과 정치, 사회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낡은 것을 시대에 맞게 뜯어 고치고자 하는 개혁이 있다.

그러므로 표어는 정부 및 사회 단체가 대중에게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호소하거나 알리기 위해 16자 이내로 압축하여 운율적으로 표현한 언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30. 위 글을 포괄할 수 있는 주된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표어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표어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 ③ 표어를 만든 주체는 누구인가?
- ④ 표어를 만들어 쓴 이유는 무엇인가?
- ⑤ 표어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가?

31. <보기>는 ‘발명의 날’ 기념 표어들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ㄱ. 발명 문화 활짝 필 때 미래 한국 산업 강국
- ㄴ. 내가 만든 발명품이 나라 발전 초석 된다.

- ① ㄱ의 생산자는 공공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ㄴ의 생산자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ㄱ, ㄴ 은 전형적인 표어의 형식이다.
- ④ ㄱ, ㄴ의 수용자는 대중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ㄱ, ㄴ 은 내용적 측면에서 장려의 성격이 나타난다.

32. ㉠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스터로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①

②

③

④

⑤

[33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전 줄거리

철호는 개리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켈리맨이다. 그는 전쟁의 충격으로 “가자!”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병든 노모와 만삭의 아내, 부상을 입고 제대한 아우 영호, 그리고 양공주가 된 누이동생 명숙 등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과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면서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인물이다. 반면, 동생 영호는 은행 강도를 하다가 체포되어 수감되고 아내는 난산으로 인해 죽게 된다. 철호는 절망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를 뽑기로 작정한다.

S# 111. 동 치과 안

앗!

하는 비명과 함께 의사가 집게를 들고 철호의 이를 뽑아낸다.

의사 좀 아팠지요. 뿌리가 구부러져서…….

하며 뽑아든 이를 보인다.

철호가 침을 타구에 뺄는다. 나오는 피——.

의사가 계속해서 뽑은 자리를 치료하고 나서

의사 됐습니다. 한 삼십 분 후에 숨을 빼 버리슈.

철호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보고 나서

철호 이쪽을 마저 뽑아 주실까요?

의사 어금니를 한 번에 두 개씩 빼면 출혈이 심해서 안 됩니다.

철호 몽땅 뽑았으면 좋겠는데요.

의사 한쪽을 치료해 가면서 뽑아야지 안 됩니다.

철호 그럴 새가 없습니다. 마약 쏘시는걸요.

의사가 주사기에 약을 넣으며 빙그레 웃는다.

의사 안 됩니다. 빈혈증이 일어나면 큰일나니까요. 자 벗으실까요.

하자 철호는 하는 수 없이 의자에서 일어선다. (중략)

S# 115. 설령탕집 안

휘청거리고 들어온 철호가

철호 설령탕!

하고 의자에 쓰러진다.

철호가 또 휴지를 꺼내다가 힘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S# 116. 그 집 앞

그 집 옆 골목으로 비틀거리고 나온 철호가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는다.

‘왈각’ 쏟아져 나오는 피.

그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선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그는 휘청거리고 나가서는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우고 던져지듯 털썩 차 안에 쓰러지자 택시는 구르기 시작한다.

S# 117. 자동차 안

조수 어디로 가지죠?

철호 해방촌!

자동차가 원을 그리며 돌아

철호 아냐. 동대문 부인 병원으로.

이번엔 반대로 커브를 돌리자

철호 아냐. 종로서로 가야!

운전수와 조수가 못마땅해서 힐끗 돌아본다.

S# 118. 동대문 부인과 산실

아이는 몇 번 앙! 앙! 커리더니 이내 그친다.

그 옆에 허탈한 상태에 빠진 명숙이가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다.

여기에 W*되는 명숙의 소리.

명숙 오빠 돌아오세요 빨리. 오빠는 늘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켈 좋으시다고 하셨죠? 이 애도 곧 웃을 거예요. 방긋방긋 웃어야죠. 웃어야 하구 말구요. 또 웃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S# 119. 경찰서 앞
택시가 와 선다.

S# 120. 자동차 안
조수가 뒤를 보며
조수 경찰입니다.

혼수상태의 철호가 눈을 뜨고 경찰서를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뒤로 쓰러지며

철호 아냐. 가!

조수 손님 중로 경찰선데요.

철호 아냐. 가!

조수 어디로 갑니까?

철호 글썽 가재두…….

조수 참 딱한 아저씨네.

철호 …….

운전수가 자동차를 몰며 조수에게

운전수 취했나?

조수 그런가 봐요.

운전수 어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철호가 그 소리에 눈을 떴다가 스프르 감는다.

밤거리의 풍경이 쉼 새 없이 뒤로 흘러간다.

여기에 철호의 소리가 W한다.

철호E*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딘지 가긴 가야 하는데…….

이 때 네거리에 자동차가 벨 소리와 함께 선다.

조수 (돌아보며) 어딜 가지죠?

철호가 의식이 몽롱해진 소리로

철호 가자…….

S# 121. 하늘

도시의 소음이 번져 가는 초저녁 하늘. 유성(流星)이 하나 길게 꼬리를 문다.

S# 122. 교차로

매르릉 벨이 울리자 —— 신호가 켜진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행렬에 끼어서 멀리멀리 사라져 간다.

- 이범선 원작 / 나소운·이종기 각색, 「오발탄」

* W : 와이프(Wife). 한 화면이 닦아 내는 것처럼 조금씩 없어지며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 것. 와이프 아웃(Wipe Out=W.O.)이라고도 함

* E : 이펙트(Effct). 효과(음). 화면은 앞 화면 그대로 유지한 채 소리만 덧붙이는 기법

33. 위 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철호'의 치통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을 상징한다.
 ㄴ. '철호'의 '가!'라는 외침은 처절한 현실에서 부르짖는 감정의 표출이다.
 ㄷ. '해방촌'은 '철호'와 '그 아내'가 평소 꿈꾸었던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ㄹ. '철호'를 '오발단'으로 설정한 것은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문학적 장치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4. 위 글의 촬영을 위해 연출가가 지시할 만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116 : 카메라맨은 철호를 클로즈업 한 후, 철호의 어지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② S#117 : '철호'의 갈 곳 모르는 삶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자동차가 방향을 자주 바꾸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③ S#118 : '명숙'의 소리는 오빠를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이 드러나도록 하세요.
 ④ S#120 : '운전수'는 '철호'에 대한 따뜻한 정감이 느껴지도록 시선을 처리해 주세요.
 ⑤ S#121~S#122 : '철호'의 비극적인 인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화면이 차차 어두워지는 기법을 활용하여 장면을 마무리해 주세요.

35. 위 글의 '철호'와 <보기>의 '윌리 로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의 희곡인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주인공 윌리 로만은 원래 전원생활과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30년간 오직 세일즈맨으로 살아오면서 자기 직업을 자랑으로 삼고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물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두 아들 비프와 해피에게도 그의 신조를 불어넣으며 그들의 성공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두 아들은 그의 기대를 저버리고 타락해 버렸고 그 자신도 오랜 세월 근무한 회사에서 몰인정하게 해고당한다. 궁지에 몰린 그는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 주기 위해 자동차를 과속으로 몰아서 자살한다.

- ① '철호'는 '윌리 로만'과 달리 직면한 현실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② '윌리 로만'은 '철호'와 달리 평소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③ '철호'와 '윌리 로만' 모두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④ '철호'와 '윌리 로만' 모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⑤ '철호'와 '윌리 로만' 모두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좌절하는 소시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36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피아제(Piaget)는 인간의 발달과 관련하여 '아동은 어떤 발달 단계를 거쳐서 복잡한 환경에 적응해 가는가?'하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피아제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인지 발달 과정을 도식(schema)과 적응(adaptation)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도식은 '형태(form)'를 뜻하며,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을 말한다. 유아는 선천적으로 반사 행동을 갖고 태어나 이를 반복함으로써 도식을 만들어 나간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는 빨기 반사를 갖고 태어나 젖을 빨으로써 빨다는 것에 대한 도식을 지니게 되고, 이것이 계속 기억 속에 남아서 반복된다. 피아제는 어린 아이들의 두뇌가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고, 경험의 폭이 좁으므로 이들이 지니고 있는 도식은 질적으로 성인과는 다르다고 믿었다.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도식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인지 구조를 발달시켜 나간다.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데, 이러한 적응은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동화**는 이미 경험 또는 학습으로 이루어진 개념, 즉 기존의 도식에 맞게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자란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시골을 가던 중, 소를 보고 "엄마, 저기 큰 개가 지나가."라고 말한다고 할 때, 엄마는 "저것은 개가 아니고 소라는 거야."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아동은 말이 네 개고 털이 난 짐승은 '개'라는 자기 나름의 도식을 지니고 있다. 이 기존의 도식에 새로운 물체인 '소'를 끌어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동화이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받으면서 아동은 이미 지니고 있던 도식과 새로운 물체 사이에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기존의 도식을 변용해 나가게 된다. 즉, 소는 개보다 크고,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식에 변용을 가하는데 이를 조절이라고 한다.

인지 발달 과정의 두 가지 측면인 동화와 조절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 작용의 되풀이를 통해 사고의 조화를 이룬 평형화(equilibration)에 이른다. **예를 들어 넓적한 컵의 물을 모양이 길쭉한 다른 컵에 부었을 때, 아동은 물이 많아졌을까 하는 의문으로 혼동하게 된다.** 이런 인지적 갈등은 기존에 만들어진 아동의 사고 능력으로는 **① 해결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인지 단계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동화와 조절이라는 적응 기제를 통해 발전된 도식은 관련된 상호 체계 속에서 모아서 주변세계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동은 털 달린 네 발 짐승들인 '개', '소', '고양이'에 대한 도식을 연결한 후, 이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쉽게 지적하게 되는 조직화(organization)에 **②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동은 이렇게 복잡한 주변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36.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식의 질적인 면에서 아동과 어른은 차이가 있다.
 ② 도식을 변용해 나가면서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③ 평형화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지 단계로 발전한다.
 ④ 인지 발달과 인지적 갈등 사이에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⑤ 도식은 선천적인 반사 행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37. ㉔와 관련된 <보기>의 자료를 접하였다. ㉑ ~ ㉓ 중, **동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3점]

< 보기 >

엄마는 평소에 어린 쌍둥이 형제에게 똑같은 모양의 유리컵에 우유를 따라 주었다. 그럴 때면 ㉑ 형제는 유리컵에 담긴 우유의 높이를 보고서 그 양이 서로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㉒ 엄마가 형에게는 길쭉한 컵에, 동생에게는 넓적한 컵에 각각 같은 양의 우유를 따라주었다. 그러자 동생은 자기 쪽의 우유가 적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상대적으로 우유의 높이가 낮아 보였기 때문에 우유의 양이 적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반면 ㉓ 형은 자기 쪽 우유의 높이가 더 올라갔으므로, 우유의 양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여 매우 기뻐하였다.

동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엄마는 기지를 발휘했다. 평소에 우유를 따르던 똑같은 모양의 유리컵 두 개를 꺼내어 형제의 우유를 옮겨 따른 것이다. ㉔ 두 컵의 우유 높이가 다시 같아지는 것을 본 형제는 의아해 하였다. 그러다가 곧 ㉑ 같은 양의 우유라도 컵의 모양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① ㉑
- ② ㉒
- ③ ㉓
- ④ ㉔
- ⑤ ㉕

38. ㉑, ㉒의 '되다'가 지닌 의미와 용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 보기 >

<의미> ㉑. (자동사) 물건이 다 만들어지다.
 ㉒. (보조동사) 그러한 상태에 놓이다.
 ㉓. (접미사) 명사에 붙어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말

<용례> ㉑. 생각보다 일이 까다롭게 되었다.
 ㉒. 어제 맞추었던 옷이 벌써 다 되었다.
 ㉓. 소식이 없는 아우로 인해 걱정되었다.

- | | |
|---------|---------|
| ① ㉑ - a | ② ㉑ - c |
| ③ ㉒ - b | ④ ㉒ - a |
| ⑤ ㉒ - c | ⑤ ㉓ - a |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놀부 말하기를,
 “너도 염치없다. 내말 들어 보아라.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이요,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라. 네 복을 누를 주고 나를 이리 보케느뇨. 쌀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할며, 벼가 많이 있다고 너 주자고 심을 할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피목궤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며, 가릇
 [A] 되나 주자 한들 북고왕 염소독에 가득 넣은 것을 독을 열며, 의복이나 주자 한들 집안이 고루 벗었거든 너를 어찌주며, 찬밥이나 주자 한들 새끼 낳은 거먹암개 부엌에 누웠거든 너 주자고 개를 굶기며, 지거미나 주자 한들 구중방(九重房) 우리 안에 새끼 낳은 돌*이 누웠으니 너 주자고 돌을 굶기며, 것섬이나 주자 한들 큰 소가 네 필이니 너 주자고 소를 굶기라. 염치없다. 흥부놈아.”
 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 뒤 꼭지를 꽉 잡으며, 몽둥이를 지끈 쥐어 손재승의 매질하듯 원화상의 법고 치듯 아주 광광 두드리니, 흥부 울며 이른 말이,
 “애고 형님 이것이 웬 일이요. 방약무인(傍若無人) 도척이도

이에서 성현이요, 무지불측(無知不測) 관속이도 이에서 군자로다. 우리 형제 어찌하여 이다지 극악한고.”
 탄식하고 돌아오니, (중략)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품이나 팔아 봅세.”
 흥부 아내 품을 팔 제 용정방아 키질하기, 술집에 술 거르기, 초상집에 제복(祭服) 짓기, 제삿집에 그릇 닦기, 언손 불고 오줌 치기, 해빙(解氷)하면 나물 뜯기, 봄보리 갈아 보리 놓기, 온갖으로 품을 팔고,
 흥부는 정이월에 가래질하기, 이삼월에 붙임하기, 일등전답 못논 갈기, 입하(立夏) 전에 면화 갈기, 이집 저집 이영 엮기, 더운 날에 보리 치기, 비 오는 날 명석 걸기, 원산 근산 시초(柴草) 베기, 무곡주인(賃穀主人) 짐 저주기, 각읍(各邑) 주인 샅길가기, 술만 먹고 말짐 실기, 오 푼 받고 마칠 박기, 두 푼 받고 똥개 치기, 한 푼 받고 비 매기, 식전에 마당 쓸기, 온갖 일을 다 하여도 끼니가 간 데 없네.
 이때 본읍 김 좌수(座首)가 흥부를 불러 하는 말이,
 “돈 삼십 냥을 줄 것이니 내 대신으로 감영에 가 매를 맞고 오라.”
 하니, 흥부 생각하되, ‘삼십 냥을 받아 열 냥어치 양식 팔고, 닷 냥어치 반찬 사고, 닷 냥어치 나무 사고 열 냥이 남거든 매 맞고 와서 몸조섭을 하리라.’하고 감영으로 가려 할 제,
 ㉑ 흥부 아내 하는 말이,
 “가지 마오. 부모 혈육을 가지고 매삿이란 말이 웬 말이요.”
 하고, 아무리 만류하되 중시 듣지 아니하고 감영으로 내려가더니, 아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마침 나라에서 사(赦)가 내려 죄인을 방송하시니, 흥부 매품도 못 팔고 그저 온다.
 흥부 아내 내달아 하는 말이,
 “매를 맞고 왔음나.”
 “아니 맞고 왔음네.”
 “애고 종소, 부모 유체(遺體)로 매품이 무슨 일고.”
 흥부 울며 하는 말이,
 “애고애고 설운지고, 매품 팔아 여차여차하자 하였더니 이를 어찌하잔 말고.”
 흥부 아내 하는 말이
 “우지 마오, 제발 덕분 우지 마오. 봉제사(奉祭祀) 사순 되어 나서 금화금벌(禁火禁伐) 뉘라 하며, ㉒ 가모(家母) 되어 나서 남군을 못 살리니 여자 행실 참혹하고, 유자유녀(有子有女) 못 챙기니 어미 도리 없는지라 이를 어찌할꼬. 애고 애고 설운지고, 피눈물이 반죽 되던 아황여영의 설움이요, 조각가 지어내던 우마시의 설움이요, 반야산(蟠耶山) 바위 틈에 숙낭자의 설움을 적자 한들 어느 책에 다 적으며, 만경창과 구곡수(九曲水)를 말말이 두량(斗量)할 양이면 어느 말로 다 되며, 구만리 장천을 자자이 재런들 어느 자로 다 켈꼬, 이런 설움 저런 설움 다 후리쳐 버려 두고 이네 나만 죽고지고.”
 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 가슴을 광광 두드리니, 흥부 역시 비감하여 이른 말이,
 “우지 마오, 안연 같은 성인도 안빈낙도하였고, 부암에 담 쌓던 부열(溥說)이도 무경(武丁)을 만나 재상이 되었고, 신야에 밭 갈던 이윤(伊尹)이도 은탕(殷湯)을 만나 귀하게 되었고, 한신(韓信) 같은 영웅도 초년 곤궁하다가 한나라 원융(元戎)이 되었으니, 어찌 아니 거룩하뇨. 우리도 마음만 옳게 먹고 되는 매를 기다려봅세.”
 - 작자 미상, 경판(京板) 25장본 「흥부전」

* 천불생무록지인이요 지불생무명지초라 :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땅에 이름 없는 풀은 없다.
 * 돌 : 돼지
 * 사(赦) : 나라에 경사가 있어 죄인을 풀어주는 일

39. [A]와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B]에서는 모두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② [A]와 [B]에서는 모두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③ [A]와 [B]에서는 모두 대구적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자기 행동에 대한 당당한 태도를, [B]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에서는 동생의 요구에 대해 비난하는 태도를, [B]에서는 아내의 자책에 대해 위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0. ㉠을 <보기>와 같이 표현했을 때, 변화한 요소로 적절한 것은? [1점]

< 보기 >

[아니리] 삼문간에 당도하니, 그날사말고 죄인 취혈이 났던가 보더라. “죄인 잡아들여라.”, “예어.” 야단이 났지.

삼문 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웬 놈들이 너댓 장관이나 열거 뚜딜어 맞거늘, 흥보 안 마음에는 그게 다 돈 버는 사람인 줄 알고, “아따, 그놈들, 먼저 와서 고생은 험다마는, 돈 수 여러 백냥 버는구나, 거, 나도 한 번 까고 열거 볼 밖으.”

그러고 있을 적에 사령들이 와 쏘아져 나와 보니, 그중에도 흥보 아는 사령 하나가 있던가 보더라. “아, 이거 박 생원 아니시오?”

“박 생원, 이거 어쩐 일이요?”

“매 맞이로 왔지.”

“아아, 박 생원 꿏았소, 꿏아.”

“아, 달같이 꿏지 사람이 꿏아?”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웬 놈이 박 흥보 씨 대신이라고 왔기에 내 솜씨로 곤장 열 개 때려 보냈는디, 어따, 그놈 당차고 매 잘 맞습디다.”

“아이고, 그놈이 어떻그름 생겼던가?”

“기가 땅팔막하니, 모구눈 구벽턱에 쥐털 수염 거사리고, 빈대코 밧심밧심하면서, 어따, 그놈 매 잘 맞습디다.”

“어뵘싸, 우리 마누라가 밤새두룩 가시오 마시오 우는 바람에 우리 앞집 피수아비란 놈이 알고 내 밧등걸이를 해 버렸구나.”

- 판소리 신재효 본, 「흥보가」 중에서

- ①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 ② 연극적인 요소가 줄어들었다.
- ③ 인물의 해학성이 강조되었다.
- ④ 장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다.
- ⑤ 언어 유희적 요소가 생략되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흥부가’는 형제 사이의 우애 문제와 당시에 급속히 진행된 농촌 사회의 빈부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 사회는 이양법 등 영농 기술의 발달로 인한 광작(廣作)이 늘어나고, 소작할 농토와 생활 터전을 잃은 농민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빈곤 계층이던 농민의 생활난이 가중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이 약화되고 형벌체제, 신분제 등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 ① 생계유지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흥부의 모습은 당대 농민의 전형이라 할 수 있어.
- ② 매품까지 팔아야 했던 상황에서 당대 빈곤계층이 겪은 처절한 생활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
- ③ 돈으로 매품을 사고파는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형벌 체제가 무너지는 당대의 현실을 알 수 있어.
- ④ 흥부를 대하는 놀부의 모진 행동에서 전통적 유교 관념이 약화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
- ⑤ 울고 있는 남편을 대하는 흥부 아내에게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당대 사람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어.

42. ㉡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것은?
- ① 꽃 같은 얼굴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꿏소나,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 ②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사.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풀엇던가. 진실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 ③ 이런들 엇더하며 저런들 엇더하리. 만수산 드렁곶이 열거진들 그 엇더하리. 우리도 이같이 열거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 ④ 가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같이 검은들 속조차 검은소나. 아마도 길 회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 ⑤ 어즈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 비록 있다 하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 대마도로 빈 배 절로 나올런가.

[43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은 2차원의 공간에 색과 형태를 질서 있게 배치하는 미적 표현의 한 양식이다. 그리고 미술 기호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색과 형태의 체계이다. 따라서 미술은 하나의 기호 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기호 텍스트가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듯이 미술 텍스트도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미술에 사용되는 소재의 물질적 존재 위치는 3차원이며, 지각하는 주체의 위치도 3차원이다. 그러나 미술에서 구현될 때에는 ① 2차원으로 구현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예술가는 입체성과 시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만 두 특징을 동시에 드러낼 수는 없다. 그래서 시간성을 약화시킨 원근법을 사용하여 입체성을 드러내거나, 입체성을 약화시킨 공시법으로 시간성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원근법은 멀리 있는 대상과 가까이 있는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실제로는 입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이 경험상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확실하게 보인다는 경험적 학습에 따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원근법은 3차원의 입체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2차원의 방식이다. 한편 공시법은 원근에 따른 입체성이 약화된 반면, 시간과 공간의 계약을 초월한 공시성이 강화된다. 공시성의 강화는 어느 하나의 대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거리에 상관없이 대상은 동일한 크기로 나타나게 된다.

원근법이나 공시법은 시각 처리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원근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각 처리를 위한 초점 맞추기이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의 포착이 가능하도록 초점의 중앙에 대상을 놓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처리한다. 그렇다고 초점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비해 크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며,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는 좌나 우 또는 뒤로 물러나게 한다. 반대로 공시법은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발생하는 대상을 한꺼번에 처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근법이 시각 처리를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비해 공시법은 다양한 감각 기관의 인지 결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산 속에서 사자가 나를 발견하고 공격하려는 순간 뒤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도 들렸다면 인간의 시각은 사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청각은 호랑이에게 맞추어져 있을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초점으로 대상을 드러내기보다는 동시에 다가오는 두 개의 위협을 공시적으로 처리하며, 대상과 주체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의미가 없게 된다. 모든 것이 초점이 되고, 모든 것이 전경화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시법에 의한 미술 텍스트는 시각 처리에 따른 묘사가 아니라 작가의 다른 감각 즉, 감정이나 정서 처리를 바탕으로 하는 해석의 결과이다. 또한 모든 것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결과로서 정서를 중시하는 심리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43.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술 체계 정립의 필요성
- ② 미술에서 색과 형태의 조화
- ③ 미술 기호의 다양한 식별 방법
- ④ 미술 텍스트에서 시각 처리 차이
- ⑤ 미술 텍스트에서의 차원 문제 해결 방법

44. 공시법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지한 대상을 한꺼번에 처리
- ② 정서 중심의 심리적 태도 중시
- ③ 경험적 학습에 따른 대상의 식별
- ④ 시간과 공간의 계약을 뛰어넘음
- ⑤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대상의 인식

4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세잔의 '마른강의 다리'는 강변과 다리가 옆으로 축을 이루고, 치솟은 미루나무와 수면에 떨어진 미루나무의 그늘이 상하의 악센트를 좌우로 펼친다. 건경의 수목이 왼쪽 면에 크게 자리하고, 이것을 마주보는 오른쪽 풍경에서는 집의 지붕을 비스듬히 보여 주고 있어 원근법이 잘 드러나 있다.

- ① 대상의 크기로써 먼 풍경과 가까이 있는 풍경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군.
- ② 다양한 감각 기관의 인지 결과로 나무와 하늘을 동시에 표현했다고 볼 수 있군.
- ③ 작품 전체적인 구도로 보아 강의 다리가 초점 맞추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군.
- ④ 작품의 입체성을 살리기 위한 화가의 의도는 왼쪽 나무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화가는 자신의 시각적 감각 기관에 의지하여 작품을 구상하고 그렸다고 볼 수 있군.

46. ㉠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체성을 약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 ② 시간성을 약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 ③ 대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 ④ 지각하는 주체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 ⑤ 평면 위에 대상을 정지한 상태로 그리기 때문에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투수들은 어떻게 공을 빨리 던질 수 있을까. 투수들은 흔히 '몸을 실어 던진다'는 표현을 쓴다. 이것은 공이 나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공을 던진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신체 부위의 위치와 속도를 변화시키며 공의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투수는 먼저 양 다리와 엉덩이를 중심으로 하체 쪽에 무게 중심을 ㉠ 잡고 천천히 움직인다. 다음 단계에서 팔을 감아올리며 점점 무게 중심을 상체로 이동시키면서 몸의 속도를 높인다. 그러다가 공을 잡은 팔이 퍼지면서 무게 중심은 공을 던지는 손 쪽으로 더 이동하고, 팔의 회전이 빨라지면서 공이 손에서 떠나는 순간, 공은 빠르게 날아간다.

이를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해 보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투수의 몸에서 공이 막 떠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자. 이때의 속도는 투수가 공을 쥐고 만들어 내는 운동량이며 질량은 투수의 질량과 공 질량의 합이다. 투수는 최대한의 운동량을 만들어 공을 던지려 한다. 이 순간은 투수가 최대한의 속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던 과정의 정점이다. 바로 다음 장면, 투수의 몸에서 공이 분리되어 떨어지는 순간 공은 오로지 공만의 질량을 갖게 된다. 투수와 함께 만들어냈던 운동량은 보존되므로 공의 속도는 원래 투수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된다. 따라서 만일 투수가 몸에서 공이 떠나기 직전까지의 운동량을 최대한 크게 한다면 그만큼 공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한편 투구 자세에 따라 최대의 운동량을 만드는 과정은 다르게 나타난다. '오버핸드스로'로 던질 때 투수는 공을 왼 양손을 몸 뒤로 감아 올렸다가 공을 한 손에 쥐고 뒤에서 앞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타석을 향해 공을 던진다. 이때 투수의 회전 반경은 발에서부터 공을 쥐 손끝까지가 된다. 오버핸드스로의 연속 동작은 마치 실에 공을 매달아 빙빙 돌리다가 줄이 끊어지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실이 짧은 경우와 긴 경우를 생각하면 투수에게 유리한 신체적 조건과 팔을 뻗는 자세를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투구 동작 동안 몸의 무게 중심의 이동은 몸을 지지하는 발과 공을 던지는 팔을 연결하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언더핸드스로'로 던지는 투수는 공을 왼 손을 허리 아래 측면으로 회전시킨다. 이 투구법은 오버핸드스로보다 빠른 공의 속도를 얻기는 힘들다. 언더핸드스로의 회전 반경은 몸의 중심에서 손끝까지이므로 오버핸드스로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그리고 몸을 지지하는 발에서 무게 중심이 상대적으로 멀리 벗어나므로 몸의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언더핸드스로로 던진 공은 타자 앞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타자들이 야구 방향이를 휘두르는 순간을 놓쳐 헛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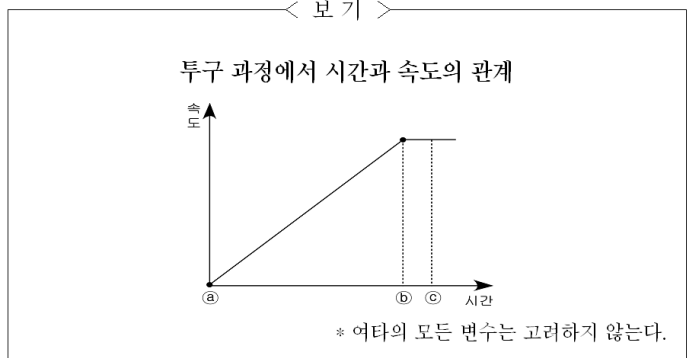
47.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을 설정한 후 그것을 구체적 현상에 적용하고 있다.
- ② 특수한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 ③ 이론이 형성된 과정을 소개하여 대상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사례의 비교를 통해 일반적인 과학 원리를 이해시키고 있다.
- ⑤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끝맺음으로써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48. '오버핸드스로'와 '언더핸드스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더핸드스로의 회전 반경은 몸의 중심부터 손끝까지이다.
- ② 오버핸드스로는 무게 중심 변화가 크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다.
- ③ 오버핸드스로 투수는 키가 크고 팔이 길수록 공의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 ④ 같은 조건에서 오버핸드스로로 던지는 것은 언더핸드스로로 던지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
- ⑤ 오버핸드스로와 언더핸드스로는 상체와 하체를 함께 이용하여 공을 던질 때 운동량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49. <보기>는 투구 동작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투수가 움직이기 이전의 상태이므로 공의 운동량은 없다.
- ② ㉡는 운동량이 극대화된 부분이다.
- ③ ㉢은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 날아가는 상태이다.
- ④ ㉠과 ㉡ 사이에서 투수의 무게 중심의 이동이 일어난다.
- ⑤ ㉠과 ㉢ 사이에서 공의 질량은 점점 가벼워진다.

5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그는 육십 평생 지휘봉을 잡고 활동했다.
- ② 지도자는 균형을 잡고 이끌어가야 한다.
- ③ 그녀는 절호의 기회를 잡고 승승장구했다.
- ④ 범인을 잡고 미궁에 빠졌던 문제를 해결했다.
- ⑤ 엄마는 나이 어린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간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